

광주시교육청, 유아·SI교육 강화한다

추경 748억원 편성...시의회 심의 거쳐 다음달 11일 최종 확정 방과후 돌봄 확대하고 AI·SW 교육·학생체험프로그램 등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유아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광주형 AI(인공지능) 미래교육 추진을 본격화 한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4일 74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광주시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유아교육 강화와 방과후 돌봄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 지원과 방과후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96억원을 투자한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오는 9월부터 만 5세아 1인당 월 10만원씩 4개월간 총 24억원을 지원한다. 냉·난방비도 20만원씩 3개월 지원할 예정이다.

전체 공급유치원에는 디지털 놀이환경 인프라인 'AI 체험실'·'미래형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8억원을 편성했다. 직속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에는 28억원을 투입해 유아놀이중심의 실외 놀이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아침 돌봄유치원 8개원, 저녁 돌봄유치원 9개원을 추가 편성, 확대한다. 초·중·고등학교 교실운영비와 돌봄교실한

경개선사업비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형 AI 미래교육을 구축하기 위해 70억원도 반영했다.

학교로 찾아가는 AI·SW 교육, AI·SW 학생체험활동 지원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초·중·고등학교 AI·SW 교육지원을 위한 강사 양성, 광주·대구교육청 교원 AI 역량강화 교류 캠프, 찾아가는 AI 스마트 기기 활용 연수 등을 통해 교원 역량을 끌어올린다.

스마트 AI융합시스템 구축·개발과 IT기업 및 대학과 연계된 중·고등학교 AI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 광주교육정보화 진단정책 연구 등 다양한 정책연구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AI융합시스템은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학습분석을 통해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38억원을 편성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시설환경, 환경위생관리 등에 805억원을 배정했다.

노후시설 개선과 학교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33억원(6개교), 맘 편한 화장실조성 133억 원(118개

교), 제로에너지스쿨 조성 190억원(44개교),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12억(53개교), 외부 치장벽돌 수직연속벽 보강 15억 원(17개교) 등에 투자한다.

맘 편한 화장실 조성사업은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통해 학생들이 화장실을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로에너지스쿨 사업은 그린 혁신을 주도하는 시교육청의 역점 사업이다.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외부창호의 단열성능을 향상해 탄소중립 정책이 적극 동참한다.

이외에도 시교육청은 다양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을 편성했다. 광주형 미래학교인 자치학교는 현장의 공감대와 학교의 요구로 인해 당초 계획인 45교보다 많은 학교인 107개교가 신청한 바 있다. 신청 학교에 운영비를 추가 교부하기 위해 1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아교육 강화와 광주형 미래교육에 중점을 뒀다"며 "학생안전·학교위생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탄소중립 등 기후환경을 고려한 교육시설 구축에 더 집중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구례 문척초 학생들이 탄소 절감과 생태농업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하고 있다. <문척초등학교 제공>

“우리는 흙기사...자연을 살립니다”

구례 문척초 학생들, 일회용품 안쓰기 등 환경보호 실천

구례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흙기사'를 자처하며 자연살리기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흙기사들은 밀 경작, 책 출간, 섬진강의 날 지정 등을 의회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흙살리기 활동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구례 문척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탄소 절감과 생태농업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흙 살리기'를 선포하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문척초는 전교생이 39명 뿐인 작은 학교다. 이 중 5학년 3명, 6학년 10명 등 총 13명은 자신들을 '흙기사'로 명명하며 선언문까지 발표했다.

선언문을 직접 작성한 '흙기사'들은 "초등학교생인 우리도 밀을 직접 경작하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월 1회 채식 급식, 잔반 제로 실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흙에서 나오는데 주변을 보면 아스팔트가 많아 안타깝다"며 "흙을 살리는 일은 나와 지구, 미래가 행복해 지는 것인 만큼

초등학생들도 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어른들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척초 흙기사 활동은 지난해 초 간이키트를 이용해 섬진강 수질 검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들은 매달 수질검사 결과를 꼼꼼하게 기록했으며 일상 삶의 모습을 더해 '파릇파릇 산별일기'라는 제목의 책까지 출간했다. 책 판매 수익금 50여만원은 지난 2020년 8월 수해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사용됐다.

또 '섬진강의 날 만들어 주세요'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구례군의회 등에 정책 제안했다. 지난해 말에는 1980㎡부지에 밀 씨앗을 뿌리며 재배를 시작했다. 책 사들은 밀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밀경작지를 찾아가 잡초를 뽑는 등 정성을 쏟고 있다. 오는 6월 수확을 하면 밀가루로 가공해 판매할 계획이다. 빵 등으로 판매해 발생한 수익금도 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신대, 해외 연수 지원...글로벌 역량 강화

파란사다리 설명회...뉴질랜드 오uckland·美 샌디에이고 연수 추진

학생들의 뉴질랜드와 미국 연수를 지원하는 '2023년 동신대학교 파란사다리 및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동신대 국제교육원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대학 정보전산센터 강의실에서 '뉴질랜드로 떠나는 파란사다리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 설명회에는 뉴질랜드 해외 연수 참여를 원하는 재학생 100여 명이 몰려 신청 방법과 교육 과정을 안내 받았다.

'파란사다리'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진로탐색·결정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대학과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이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신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사업계획서 평가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연수를 추진한다.

올해는 서류와 면접 심사로 40명을 선발, 시작되는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4주 동안 뉴질랜드의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에서 해외연수를 진행한다. 개인 생활비를 제외한 항공료, 오클랜드 가정집 홈스테이 비용, 영어 수업·문화 체험·기업 탐방 운영비, 비자·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동신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도 추진한다.



오는 5월 말까지 재학생 3명을 선발해 8월 말부터 한 학기 동안 미국 샌디에이고(San Diego)에서 집중 어학과정(8주), 현지 기업·기관 현장학습(8주)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과 전공 역량, 국제적인 감각을 키운다.

동신대 오성록 국제교육원장은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향상과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 육성의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

전남교육청 일선 학교에 설치

학교에서 화재·폭력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알려주는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이 전남지역 일선 학교에 설치된다.

전남도교육청은 다음달부터 희망 학교를 우선으로 기존의 CCTV를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전남지역 24개교가 노후 CCTV 교체, 사각지대 추가 설치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 설치 예산으로 20억3000만원을 배정했다.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돼 교내 폭력, 침입, 화재 등 이상징후가 발견됐을 경우 곧바로 학교와 관계기관 등에 통보한다.

별도의 공간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관찰, 사고 발생 후 증거용으로 활용했던 기존의 CCTV의 단점이 보완돼 사고 즉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면 학교 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교 현장의 화재, 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설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경영·운영평가 21년 연속 최우수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창업보육(BI)센터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21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전국 최고 창업 사관학교 명성을 재차 입증했다.

동강대 BI센터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260여 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운영평가에서 21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동강대 BI센터는 인프라와 인력 전문성, 사업 운영실적, 지역 내 유관기관의 협업 성과 등 정량·정성평가가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동강대 BI센터는 지난 1999년 12월 문을 연 뒤 '스타트업'(START-UP) 지원, 지자체 협력 정부사업, 대학 창업동아리 육성 등 폭넓은 분야에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BI 보육역량강화사업'도 10년 연속 선정돼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쓴다.

특히 2020년부터는 동강대 BI센터 입주기업 뿐 아니라 지역 내 창업유관기관 입주기업을 위해 광주대, 남부대, 동신대 등 지역 대학을 비롯한 한국전력공사,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호남권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등과 협력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광주북구와 창업 관련 정부 공모사업 3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동강대 BI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영구임대주택 청년 창업 지원 사업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예비 CEO 지원 활동에 나선다. 이밖에 도 올해로 9년째 교내 창업동아리 지원 사업을 펼친다.

동강대 BI센터 박경우 단장은 "동강대 BI센터는 양질의 창업 노하우를 통해 성공 창업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